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많은 여성들이 그렇듯 저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은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밤마다 검색하며 알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모두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단절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제가 모르는 다른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공부를 배워두는 것이 좋은지 검색하다가 집 근처로 산책을 나갔는데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IP-R&D 특허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집 포스터를 통해 “IP-R&D 특허전문가”란 직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니, 대학원 다닐 때 특허를 출원한 적도 있었고, 결혼 전에 R&D 연구소에 재직도 했던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나중에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할 때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와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교육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았고,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신청하고 교육 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무척 알차고 수준이 높았으며 바로 제가 원하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2개월 반이란 기간 동안 공부를 했고 수료 막바지에는 경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육생들이 조를 짜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었는데 이론으로만 막연히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 특허 대상 기술과 품목을 정하고 조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조사하고 발표할 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마치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생생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팀은 저희의 선택이 아닌 임의로 짜여 형성되었지만, 팀원들의 추천으로 제가 팀장을 맡게 되어 팀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책임감도 생기고 꼭 우승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대회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팀원들 역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임해주었기 때문에 트러블 한번 없이 무사히 경진대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 팀원들 별로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어 역할분담을 했고, 혼자서 어려운 부분은 카페에서 만나서 의견을 나누며 내용을 작성하고 보완하며 모두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진대회 날에도 결혼 후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라 떨리고 무서웠지만 다함께 준비하며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힘이 되어 무사히 발표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의류건조기에 관해 준비했고 발표 당일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저는 결과보다도 팀원들을 만나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을 저희끼리 스스로 해보며 함께 준비한 그 시간이 너무 좋

있습니다. 경진대회라는 기회 없이 교육만 들었으면 서로에 대한 끈끈한 유대나 단합 없이 교육이 마무리 되었을 텐데 경진대회를 통해 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 전, 이 수업을 들었던 것이 정말 ‘신의 한 수’ 였습니다.

IP-R&D와 관련하여 현직에 계신 변리사님과 전문가들의 교육을 들으며 생생한 직무경험담과 어려웠던 점, IP-R&D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결혼과 출산으로 단절된 교육생들을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수업의 마지막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 뿐 아니라 저희 교육생들 간의 단합과 경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교육은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제게 꼭 맞는 직업은 찾았는데 취업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작은 아이의 육아로 인해 오후 5시에는 반드시 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의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에는 저는 경력이 일천한 신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대전배재대ICT융합세일센터의 선생님에게서 특허사무소로의 취업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기에 제가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면서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한 곳이라면 당장 출근할 수 있다고 담당선생님은 관리하시던 특허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님께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중 한 명이었던 저를 적극 추천하셨는데 처음엔 대표님이 난색을 표명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전엔 그런 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으셨던 터라 난감해하셨다고 합니다. 담당선생님은 한번 면접이라도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려서 제가 대표님을 만나 볼 수 있었고, 그 면접에서 다행히 좋은 인상을 드려서 마침내 2021년 3월 29일 특허법인 사무실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며 지켜보셨지만 지금은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시고 세일센터에도 저에 대한 칭찬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 두려움보다는 재미를 느끼며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 결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우면서 오후 5시 조기 퇴근으로 둘째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기적과 같고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저는 취업 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강의를 꼭 들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에는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생활에 활력이 없었고,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저의 능력을 인정받으니 성취감이 들고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자존감은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아이들의 자존감도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고, 가족 모두에게 활력과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당당하게 마주하고

이겨내는 자심감도 생겼습니다.

저와 똑같이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두려움을 스스로 깰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직무에 대해 미리 배울 수 있는 수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미리 준비를 하다보면 두려움보다는 빨리 배운 것을 직장이란 생생한 현장에서 실행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사 5개월째인 저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며 일을 배우는 즐거움과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리를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란 평범한 이 말이 마치 안성맞춤처럼 제게는 꼭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